

외솔 打字機

字 을 統一한 實用的인 2벌식

이 현 승
 <<株>>正音社 企劃室

머릿말

現代社會를 情報産業社會라 부르며 事務自動化를 부르짖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事務自動化라 하면 반드시 컴퓨터의 利用을 떠올리고 情報處理機器라 하면 컴퓨터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情報處理機器는 打字機, 텔레타이프, 複寫機, 컴퓨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事務自動化 역시 이들을 어떻게 活用하느냐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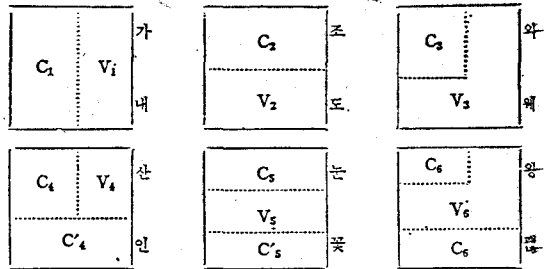
컴퓨터가 情報處理機器의 尖端이요 事務自動化의 꽃이라면 打字機는 情報處理機器의 根本이요 事務自動化의 뿌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先進國의 경우 각 事務室의 책상마다 打字機가 놓여있고 電話의 普及率과 打字機의 普及率이 같다는 統計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리글자이기는 하나 모아쓰기로 찍혀야 하는 한글의 特性으로 인해 자판의 혼란이 계속되었고 가장 根本이 되는 打字機의 혼란으로 인해 연관된 모든 情報處理機器에 영향이 미쳐 事務自動化가 늦어지게 되었다.

概要

한글타자기는 1914년 이 원익이 英文타자기를 利用, 가로적어 세로읽기식의 타자기를 만든 이

후 한글의 特性으로 인하여 그 입력장치인 글자판의 혼란이 심했다. 즉 基本 자음·모음만 있으면 모든 글자가 이루어지면서도 實際 모아찍히는 形態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가지 形態로 나뉘어져 印刷한 글자처럼 찍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성자음 6벌, 모음 6벌, 받침 3벌 등 모두 15벌의 活字가 있어야 되고, 이에 따라 최소한 250여개의 活字가 필요해진다. 그러나 打字機에는 44개의 글자판과 88개의 活字受容能力밖에 없으므로 한글타자기는 별수 論爭과 함께 글자꼴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더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打字機에는 88개 活字의 受容能力이 있기는 하나 꼭 필요한 숫자·부호등 30개 活字를 빼고나면 실제로 한글의 자·모를 수용할 수 있는 活字는 58개로 줄어든다. 바로 여기서 58개의 活字와 이에 딸린 29개의 글자판에 어떻게 한글 자·모를 選別



排列하느냐가 한글타자기에 있어 爭點이 되어 왔다. 그 때문에 수많은 별식의 亂立이 있었고 이를 統一하기 위한 수차례의 자판표준화 시도 끝에 1969년 국무총리훈령 제81호로 한글타자기의 자판을 4별식으로 표준화하기에 이르렀다.

發明의 動機

그러나 한글타자기의 자판이 4별식으로 표준화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暫定的인 표준화로 궁극적인 한글타자기 글자판은 基本 자·모만으로 된 2별식이 가장 理想的이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었고 따라서 暫定的인 4별식 자판도 2별식을 基礎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국무총리훈령 제81호의 근거가 되는 제51차 國務會議에서 밝혀놓았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훈령 제81호에 따라 4별식 표준자판이 활발히 普及되는 동안에도 2별식자판 한글타자기의 研究開發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한글학자인 의술 최현배님의 장손이자 高麗大學校 敎受로 在職中이던 최동식박사도 2별식타자기를 研究, 開發하는 이들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최동식박사는 할아버님의 遺志를 받들고 家業처럼 이어져온 한글문화의 暢達을 한글機械化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보고자 한글타자기에 눈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던중 KBS 技術部에 근무하는 김광성씨의 활자질을 비스듬히 슈프트시키는 아이디어와 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 힘을 합해 이 아이디어를 基礎로하여 本格的으로 2별식자판의 한글타자기 開發을 서두르게 되었다. 자칫하면 死藏되어 버릴 뻔 했던 劃期的인 아이디어가 빛을 보고 한글기계화에 커다란 變化를 가져와 한글

情報處理機器의 字版統一을 이루게 한 매우 뜻깊은 만남이었다.

開發의 過程

최동식박사와 김광성씨의 만남으로 2별식 한글타자기의 開發에 따른 모든 問題點이 解決된 것은 아니었다. 既存 수직으로만 상하 운동하던 슈프트동작을 비스듬히 운동시켜 초성을 받침의 자리에도 찍히도록 한다는 基本 方針은 세워졌으나 이를 機械的으로 可能토록 하는데는 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打字機라는 것 自體가 서양의 구문자를 찍기위해 發明되어 백여년을 開發되어온 것이었고 따라서 한글타자기는 이를 開造하는데 그치고 있던 당시의 실정으로는 打字機 機械構成 自體를 完全히 이해하고 이를 새로 개발하기 위한 專門技術者가 절실히 필요했다. 즉 뜻과 아이디어를 具體的으로 現實化할 專門技術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때 당시 공병우타자기에 근무하면서 한글타자기 개발에 보다 積極的으로 參與하고자 하는 專門技術人 김중승씨(현 本社 개발과장)를 만나게 된다. 비로소 뜻과 아이디어와 專門技術의 完全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이 마주친 첫번째의 問題點은 받침이 있는 글자를 찍을 경우 첫자음과 모음을 찍은후 2칸 진행한 상황에서 받침의 印字점을 어떻게 逆進시켜 최초의 첫자음 밑으로 보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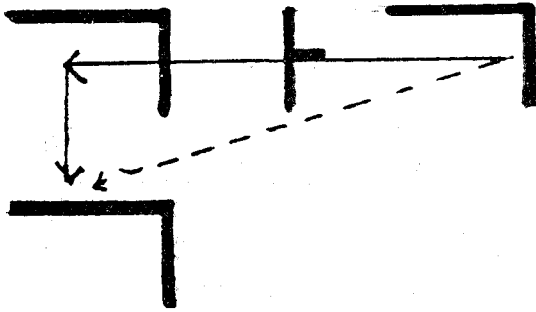
처음 시도된 방법은 첫자음과 모음을 찍은후 받침을 찍기위해 슈프트시킬때 既存의 백스페이스장치를 함께 작동시켜 印字점을 逆進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問題點이 따랐다.

첫째, 받침을 찍을 때마다 백스페이스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작이 필요했고 백스페이스장치의 사용빈도가 높아 기계에 무리가 따르며 속도가 늦어지는 결함이 있었다.

둘째,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침의 印字位置로 이동되기 위한 거리가 직선이 아니므로 더더욱 속도를 둔화시켰다.

그리하여 이런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既存의 상하수직슈프트의 通念을 깨뜨린 斜線슈프트방식이었다. 즉 나르거나 활자질

그림 2.



이 쉬프트될때 받침의 인자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斜線으로 逆進쉬프트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 쉬프트장치에 있어 전혀 새로운 기계구성을 設計開發하였고 이를 발명특허 제 7131호(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반자동 한글타자기)와 제 8492호(2벌식 자판에 의한 한글타자기)로 등록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부수적인 技術開發로는 쉬프트동작때에는 에스케이프먼트가 정상위치에서 이탈되어 스페이스의 진행이 일어나지 않는 動·不動 선별장치를 고안할 수 있었다.

成 果

이러한 過程을 거쳐 오랜 숙원이었던 실용적인 2벌식자판의 한글타자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드디어 1981년 “외솔타자기”란 제품명으로 生産市販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외솔타자기가 시판되자 그간 한글타자기 자판 표준화에 一益을 담당했던 국무총리훈령 제81호가 2벌식 자판 한글타자기의 普及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그것은 국무총리훈령 제81호에서 지정한 표준자판의 4벌식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1969년 이후 4벌식 한글타자기를 生産販賣하던 既存 타자기메이커의 이해관계도 커다란 問題로 대두되었다. 2벌식자판의 技術內容이 (주)정음사의 특허로 등록되어 있어 다른 메이커의 생산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는 國內現實이 외국의 상표도입에는 막대한 로얄티를 지불하면서도 國內新技術에 대한 로얄티 지불에는 매우 不定的이었기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打字機를 제외한 컴퓨터 등 다른 情報處理機器의 한글 글자판은 KSC-5715호에

의해 2벌식으로 표준화되었고 따라서 한글타자기의 글자판과 2벌식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각계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던중 1982년 한국발명특허협회에서 주관한 전국 우수발명품전시회에서 외솔타자기를 보시고 주변상황의 설명을 들은 전두환 대통령자하께서 2벌식 한글타자기의 표준화를 지시하셨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의 1년여에 걸친 檢討와 研究끝에 1983년 8월 26일 국무총리지시 제21호로 국무총리훈령 제81호에 의한 4벌식 표준자판 제도가 폐지되고 打字機를 비롯한 모든 情報處理機器의 자판이 2벌식으로 統一되었다. 또한 특허의 公용수용과 개발자의 포상등 具體的인 후속조치까지가 지시되어 한글기계화는 새로운 轉期를 맞게 되었다. 머릿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한글기계화에 있어 한글타자기 글자판의 統一은 매우 큰 뜻을 갖는다.

외솔타자기의 개발로 인해 한글기계화는 새로운 轉期를 맞았고 國內 情報産業의 極大化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다. 2벌식자판의 한글타자기가 文字生活의 機械化를 이루고 打字機의 개인장비화를 통한 事務自動化의 土着化가 早速히 實現될 것이라는 것도 自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一部 企業체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國家的으로 커다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2벌식자판 한글타자기의 普及이 一部 재벌기업의 이해관계에 얽혀 지연되고 있다.

맺음말

事務自動化를 위한 打字機 개인장비화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그 내용도 종전 機械式打字機의 구입에서 보다 能率的인 電動打字機나 電子打字機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이에 발맞춰 本社は 이미 2벌식자판의 電動打字機를 開發市販中에 있고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普及形 電子打字機의 開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本社は 또한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여 情報産業時代에서 事務自動化를 위하여 새로운 제품의 研究開發에 더더욱 精進할 것이다. ☺